

중국, P-X 70만톤 공장 폐쇄명령

Dalian 시민 1만2000명 공장이전 시위로 ... 태풍으로 해양유출 우려

중국 Dalian에서 8월14일 시민 1만2000명이 화학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끝에 당국이 공장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는 8월14일 오전 시 정부 청사 앞 광장에 모여 유독성 화학물질인 P-X(Para-Xylene)를 생산하는 푸자(福佳) 대화석유화학 공장을 시 외곽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P-X는 폴리에스터(Polyester) 섬유 및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원료인 TPA(Terephthalic Acid) 제조에 사용되며 푸자 대화석유화학유한공사 공장은 생산능력이 70만톤으로 중국 최대의 P-X 공장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시위는 태풍 무이파로 인해 공장 인근의 방파제가 무너지면서 유독물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방파제가 무너진 직후 인근 주민들은 대피했으나 P-X 유출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조속히 가동을 중단하라는 폐쇄 명령을 내렸고 Dalian의 탕쥘(唐軍) 당서기와 리완차이(李萬才) 시장이 직접 나서 P-X 생산기업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하며 주민 달래기에 나섰으며 시위대는 약속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라며 시위를 이어나갔다.

2007년 Fujian Amoy 주민들이 타이완이 투자한 P-X 공장의 이전을 요구한 시위와 유사하며 공장은 시위 이후 점진적으로 Amoy 밖으로 재배치된 바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16>